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 100 ~ 110 周年標語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感謝の百年、希望の百年
(데살로니가전서 5:18)

12월 1일 (木) 2011 年 第 703 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 2-3-18
電話 03 (3202) 5398
発行人/ 金 武 士・編集人/ 洪 性 完
fukuinshinbun@kccj.jp
info@kccj.jp

聖誕節說教

주님께 마음의 빈 방을

누가복음 2:1-7

趙重來牧師

(船橋教会、副總會長)



사람에게 잠을 잘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비록 작은 방이든 셋 방이든 추운 방이든, 몸 하나 누이며
평안히 쉴 만한 방이 있다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수많은 방이 있었지만 방 하나 없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가이사라 정권을 잡고 주변 국가들을 하나 하나 점령 한 후, 그
나라들로 하여금 세금 징수를 위해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녀인 마리아의 출산 예정일이 임박해 있었으나 함께 데려
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쉬려고 사관(여관)을 찾아보니
빈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급한 나머지 겨우 부탁하여 방을
얻었는데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곳은 먼지와 오물과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가축들이 있는 곳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급한 대로
이곳을 얻어 아기 예수를 출산하여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7 절)는 말씀대로 방 하나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산모인 마리아에게 방 한칸을 왜 드리지
못했을까요? 산모를 받아 줄 마음의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방이 세상의 사업, 이익, 쾌락 등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방에 성령의 거하심이 있었다면 산모
한 사람 모시지 못했을까요.

성탄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세상에 오심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성탄절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년도 11 월부터
커피숍이나 백화점에서는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 장식을 하고
케를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익과 쾌락 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씨(三浦綾子)가 한 번은 불신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그는 교회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교회
성탄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성탄절에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탄절이 아이들에게는 산타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로, 젊은이들에게는 연인을 만나는 날로, 장년들에게는 추억을
남기는 행사로, 가족들은 외식하는 날로, 백화점들은 최고의
판매액을 올리는 날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성탄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건만 이 날은 산타 중심, 자기 이익 중심, 가족
중심, 애인 중심 등으로 모이는 날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칠순 잔치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님의
잔치에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늙으신 부모는 방에서 쫓겨나 바깥에서 추위에
떠는 신세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입에는
깊은 한숨만이 나올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 방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모시는 것은 거창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신 후 너무 너무 기뻐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눅 19:8) 했습니다. 누구든 주님을 모시면
삭개오처럼 기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3.11 동일본대재해로 순식간에 집과 직장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위
가운데 잃어버린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 하나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을
펴서 돌봐 주는 것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요? 마음을 비웁시다. 주님을 모읍시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주님을 우리 마음 방에 모실 때에 참된 성탄절
되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게 될
것입니다.

＜関西地方会＞聖歌隊連合会 邑久光明園家族教会訪問



台風15号が迷走する中、9月19日(祝日)、関西地方聖歌隊連合会(関聖連)19名と大阪教会青少年少女合唱団リトルジェイズ12名、父兄、牧師、合わせて37名が、岡山県長島ハンセン病国立療養所邑久光明園と日本基督教団光明園家族教会を訪問し、合同礼拝を行った。この訪問礼拝と交流は、今年で16回目になる。

一部礼拝は、金裕美(関聖連会計、布施教会)の司会に始まり、リトルジェイズが「夢をくださる方」、続いて関聖連が「強めよ、我が信仰」を讃美した後、金鐘賢牧師(関西地方会伝道部長、浪速教会)が、「はかりしれない神のご計画」(ヨハネ福音書9:1～7)という題でメッセージをした。その後、関聖連は「イエスは我がいのち」、「あなたがたは互いに愛しなさい」を讃美した。

これまでの長島訪問を通して出会った津島牧師は、今年2月26日天に召された。思春期にハンセン病にかかり、療養所に連れて来られ、泣いていた。その時、「教会において」という牧師の言葉に導かれ、キリストを受け入れた後、牧師として30年間献身された。それで礼拝の中で金必順牧師(全国女性会総務)は、津島牧師を偲び涙で熱く祈り、その祈りによって全員の心が一つになった。

礼拝後は、家族教会からはボカリスエット、関聖連からは手作りケーキが提供された。慎香(関聖連伴奏者、大阪北部教会)の司会による交わりの時間は、子どもたちと高齢になった家族教会教会員とのふれあいが配慮され、なごやかで心温まる時であった。また、家族教会からは、故津島牧師の晩年の生活状況などが話された。最後に、参加者全員で「ふるさと」を歌い、禹鐘碩長老(大阪教会)の祈りでプログラムを終えた。一年に一度、わずかな時間であるが、参加した者全員にとって、共に恵の一日であった。

(報告：李昭子関聖連委員長、大阪西成教会)

＜関東地方会＞聖歌隊研修会 東京教会에서 金必順牧師가 講師

동경교회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관동지방회 성가대연수회가 지난 10월 30일(주일)에 김필순목사를 강사로 동경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제 51회 총회에서 찬송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목사는〈예배에 쓰임받는 음악 - 살아 있는 찬양(礼拝に仕える音楽~生き生きとした讃美~)〉이라는 주제 아래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장과 반주자와 대원들을 향하여 예배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김목사에 의하면 성가대석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만 개교회의 현실은 그저 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 교회는 성가대원들의 찬양연습과는 별도로 예배교육의 중요성과 말씀 중심의 성가대교육이 절심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김목사는 주일의 정확한 의미와 예배의 의미, 그리고 예배순서와 교회력에 관한 기초적 교육을 설명한 후에 찬양의 의미를 알기 전에 찬미(讃美)의〈讃〉에 대한 언어 사용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시종일관[찬양이란 노래의 기술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이요 전심전력으로 찬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강의 후에 잊었던 질의 응답 시간에는 여러 참석자들로부터 성가대의 실전에 관한 것과 금금점, 그리고 영성에 관한 질문들이 오가는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금번 성가대연수회를 위해서 동경교회 성가대원들이 손수 저녁을 준비하여 식사를 통한 교제를 나누고 귀가하는 은혜로운 연수회가 되었다. 김필순목사는 전국교회 여성연합회 총무이며, 총회찬송가 위원회 위원장이다. 오오사카 음악대학 기악과 파이프오르간 전공과 관서학원대학 신학부를 졸업한 후에 영국과 캐나다로도 유학하여 오르간과 교회음악을 배운 교회음악의 전문가이다.(보고: 편집부)

在日同胞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2006年4月25日、創立100周年を迎えました。



- ◆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ホテル):フロントは日・韓・英語を対応、24時間サービス。10名様から202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様)も可能。
- ◆スペースワイホール:22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最適
- ◆韓国文化(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教室・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 ◆YMCA アジア語学院(日本語学校)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

在日本韓国 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東京韓国 YMCA 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 2-5-5

関西韓国 YMCA 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 3-14-15

(税込み)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300	¥5,040
ツイン	¥11,550	¥9,240
トリプル	¥14,490	¥11,592
朝食 ¥200 カルピック、コムタン、ユッケジャン、韓定食、洋食(全メニューコーヒー付き)		

TEL 03-3233-0611 FAX 03-3233-0633

TEL 06-6981-0781 FAX 06-6981-0782

＜関西地方会＞関西地方感謝祝祭 関西サックス「フェスティバル」

祈りと希望と喜びにあふれ

11月6日(主)午後3時から、関西地方会青年部・女性部・壮年部共催により、第2回関西サックスフェスティバル(관서지방감사축제)が、大阪北部教会にて開催され、14教会から114名が参加した。サックスフェスティバルは、次世代への信仰継承が課題と叫ばれているなか、信徒同士が楽しく集うことによって絆を深めたいとの願いを込め、地方会女性部から壮年部、青年部に提案したことに始まる。第1回の2009年は、壮年部と女性部の共催であったが、今回は3部共催が実現した。

第1部は礼拝、第2部は、コリア NGO センター事務局長、金光敏氏による「東日本大震災と子ども、少数者」というテーマで講演があった。同氏は、民族教育の分野から積極的な発言をしており、東日本大震災に鑑み、朝日新聞社「ニッポン前へ委員会」が募った提言論文に応募し、「人こそ最大の資源」で優秀賞を受けた。阪神淡路大震災の時に、神戸に韓国・朝鮮人、ベトナム人の集住地域があり、日本において多民族共生という考え方が認識されるようになった。今回の震災では、韓国・朝鮮人のほか中国人や、フィリッピン人、タイ人なども多く被災しており、彼らはかつての在日韓国朝鮮人同様、不安定な生活と過酷な労働環境で働いているという。



在日大韓基督教会が、ネットワークを生かして、災害発生時に被災者を助け収容する施設として機能できればと提案された。災害は誰にも区別も無く襲いかかる。その時、私たちの教会に受け入れ態勢があるかという視点を考えさせられた。

第3部は音楽会で、京都教会金仁姫勸士の創作舞踊には「祈り」が、関西連合青年会役員たちによるゴスペルには「希望」が、北部教会女性会の讃美には「喜び」があふれ、会場は心がひとつになって盛り上がった。第4部は、各教会女性会持ち寄りのケーキや餅、サンドウィッチ、召宴などが準備され、秋の収穫感謝とともになごやかな交流のひとときを持った。来年度は壮年部が主管することになった。互いに連携を深め、孤立しがちな教会や青年たちと共に集い、喜び、主に感謝する祝祭として受け継がれるよう祈りたい。(報告：林芳子長老)

＜外国人住民基本法＞制定を求める 九州・山口キャラバン in 北九州

1980年代の指紋押捺拒否闘争で結成された、外キ協(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全国キリスト者連絡協議会/1987年)活動10年間の帰結として生まれたのが、「外国人住民基本法」(1998年1月作成)である。



在日外国籍住民の地位と権利を保障する当法の制定を求める集会在、九州・山口外キ連主催、KCCJ社会委員会、日本基督教団九州教区宣教協力部門、西南KCC共催で、11月13日17時から20時まで、北九州市の西南韓国基督教会館(西南KCC)で行われた。

日本・在日教会、地域から23名が参加した。この集会は、2001年から活動を始めて、今回で18回目の集会である。Iコリント12:14-27の聖書朗読を中国語、韓国語、日本語で読み、主催者が作成した「我々の祈り」をした後、朱文洪牧師(社会委員長)の基調報告と外キ協が作成したDVDを通して、この運動の背景と意義が説明された。

そして、金貞子氏(小倉教会)が在日2世の視点から日本社会への思いを語り、教育現場の教師たちの自主性が欠けていることと、日本の軍慰安婦被害者への政府の謝罪と補償を訴えた。参加者は、西南地方会、西南KCC、教団、聖公会、カトリック、日本バプテスト連盟、そして個人である。同日、小倉教会はバザーであったため、参加者たちは、焼きそばとチヂミを食しながら、「外国人住民基本法」制定活動への期待と日本社会の閉塞感や生き苦しさを語り合った。

最後に、李陽雨氏のミニコンサートを楽しんだ。山口県出身在日2世の李氏は、40才まで出身を隠して暮らし、帰化へと決意したが、日本人友人たちの励ましで本名を名乗ることになった。「在日」の体験を歌と語り訴え続けている。日頃、納得がいかない日常の中で傷ついて生きる参加者たちは、癒しと明るい希望を頂く集会となった。

(報告：朱文洪)

写真으로 함께하는 2011 年 O! M Z M



総会神学校卒業式



関西聖書神学校卒業式



3月11日

東日本大震災

「避難」

「休職奉仕」

「教会協力」

等





外登法問題国際シンポジウム



全国女性連合会全国定期大会



全国長老研修会



全国青年協議会夏期修養会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17:21) 「キリストにあつてわたしたちは一つ」(ヨハネ17:21)

在日大韓基督教会 第51回 定期總會

日 時：2011. 10. 10-12 場 所：福岡 教会



新常任委員宣誓



＜関東地方会＞水戸教会 教会昇格式・入堂式

피재지역에서의 기쁜 소식

지난 11월 3일(목) 오후 3시부터 미토전도소에서는 교회승격식과 더불어 새성전 입당식이 거행되었다. 미토교회는 피재지역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1일의 대지진 이후에 수 많은 역경을 딛고 성장하여 전도소에서 교회로 승격하게 되었으며, 교회 건물을 구입하여 입당도 하게 되었다.

담임인 한재문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쓰쿠바동경교회의 허백기목사의 기도와 성가대 찬양에 이어서 서부지방회회장인 양영우목사(岡山教会)가 사도행전 9장 26-31의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양목사는 관동지방회의 경사스러운 행사에 서부지방회장이 설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은혜의 교류가 이어질 것을 희망하면서 미토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생하는 교회(거듭남),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교회(영혼구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교제)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지역과 일본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관동지방회부회장인 김 건목사(川崎教会)의 사식으로 교회승격이 승인되었으며, 입당식도 진행되었다. 한재문목사가 입당하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한 뒤, 교회 입당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해 온 3명의 교인(장영애권사, 장조웅(小川照雄), 신하영집사)들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하는 은혜로운 순서도 있었다.

이에 임백생장로(관동지방회 장로부회장, 東京教会)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교인들을 격려하며, [초지일관 하나님 만을 높여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오직 예수님 만을 본받아 전도에 임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거룩히 이루어 나가는 성경적교회가 되어 달라]고 권면하였다.

축사는 김병호목사(東京調布教会)와 飯塚拓也목사(日本基督教団関東教区副議長、滝ヶ崎教会主任牧師)가 하였는데, 먼저 김목사는 水戸지역을 비유하여 水戸黄門과 같은 〈정의로운 교회〉, 〈은혜의 물이 되는 교회〉, 〈보수하는 교회〉(大工町), 〈축복을 누리는 교회〉(4차선 도로에 위치)가 되었음을 축하하였다. 이어서 飯塚목사는 대지진 다음날인 3월 12일에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와 기도를 하였는데 반년이 지나자 교회로 승격하고 입당식까지 하게 됨은 일본 교회에서도 큰 간증이라며 축하하면서, [그러나 일본 선교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라]는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水戸교회는 1985년 7월 7일에 미토전도소로 설립(森田日出男牧師)되어 예배하다가 1994년부터는 예배가 일시 중단되는 아픔도 겪었다. 하지만, 1997년 5월부터 손신일목사가 부임하여 예배가 재개되었다.

이어서 2년 후에 예배당을 이전하여(1999.10.5) 예배하였다. 하지만 손신일목사의 사임(2004년 12월) 이후에 오랫동안 담임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가 되었다. 그러다가 2010년 6월 30일에 한재문목사가 부임하여 1년이 지나서 현재 교회 3층건물을 구입하게 되었다(2011년 7월 3일).



교회전경(3층건물)

교회승격식과 입당식을 마친 한목사는 [지진과 쓰나미와 방사능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회 건물이 부서지고 성도들이 각각 흩어질 위기에 있었던 미토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교회건물을 허락하시고 부흥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잘 해서가 아니라 미토교회가 피재지역 가까이에 있는 교회중에 하나로써 그들을 향해서 피뎀은 주님의 구원의 손을 대신 내밀라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미토교회의 회복을 위해 전국에서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을 받기만 하였다. 우리 교회가 그 감사에 보답하는 길은 그 분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므로 갚아가는 것이다]며 감사와 새로운 각오를 전했다.

한목사는 그동안福島지역 보란티어센타를 통하여 봉사해왔지만 이곳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의 현장봉사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경제적인 문제가 염려되지만 봉사현장을 가설주택으로 옮겨서 식사제공 등을 마련하여 피재민들과 만나 주님이 주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쓰나미를 전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豊かな味はここまで豊かにする。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Fax. 03-3353-6200

創世記連続講解 (9)

尹宗銀 牧師
(横浜教会名誉牧師)



創世記 16 章

創世記 16 章の総主題は、『アブラムが再び失敗する』のであるが、それを分解すると 4 項目に分けられる。

- ① 1-3 節：サライが夫アブラムを誘って、女奴隷ハガル〔Hagar〕をアブラムの側女にした。
- ② 4-6 節：妻と側女の間に衝突が生じハガルは逃亡した。
- ③ 7-14 節：ヤ・ウェの使者がハガルに現れて慰めて勧めた。
- ④ 15-16 節 ハガルが息子イシュマエル〔Ishmael〕を産む。

本章は、アブラムの不注意によって二度目の失敗の記事である。前章で、神はアブラムに子供を与えると確かに約束したにもかかわらず、サライは不信仰でこの約束を信じなかったもので、人間の手段を利用しようとした。それは夫を説得してハガルを妾にするようにして、彼女から子供を得ようとしたことである。信仰の人アブラムもこれを拒むことなく同意することによって千秋の恨みの過ちを犯した。

その当時の風俗によれば、本妻に子供が生まれない場合は妾を夫に与えて自分の代わりに子供を産ませるならわしがあった。サライの考えでは、自分は既に断産の身になっているので、折角の神の約束が自分によって妨害になるかと言う思いで非常手段を使用したようである。

しかしこれは、神の約束を知らない人間の謀略である。アブラムも信仰生活を 10 年以上もして来たが、未だ神の前では不完全であったので、神の言葉よりも人情のサライの言葉に従ったので失敗してしまった。

彼が不信仰によって罪を犯した結果、家庭不和のゆえに、三人が同様に苦しめられた。ハガルは追い出されて故郷に戻る途中、神の使者（天使）に出会い、本分を守って主人のもとに帰って服従することと悔い改めて神の摂理を待ち望むように命じられた。彼女の苦しみは、自分の奴隷であると言う身分を超えて主人を無視したことからもたらされた。

創世記 17 章

創世記 17 章の総主題は、『アブラムの改名と割礼』であるが、それを分解すると、5 項目に分けられる。

- ① 1 節：神の前で「全き者となりなさい」と命じられる。
- ② 2-8 節：神の祝福とアブラムをアブラハムに改名。
- ③ 9-14 節：選民の儀式である割礼を受けるように命じられる。
- ④ 15-22 節：サライのサラへの改名と祝福と契約
- ⑤ 23-27 節：アブラハムが神の命令に従って割礼を施す。

本章は、「暗闇から光明へ」、「不信仰から信仰へ」快復する記事である。16 章においてイシュマエル〔Ishmael〕が生まれる時、アブラムの年齢が 86 歳であったが、本章では 99 歳である。その間、13 年間は神の啓示が杜絶されていた。それは、アブラムの混合と不和によって神の啓示が示されなかったのが原因でもあるが、神が必要とする時期を待ち望んだのも原因だと言える。

10 年間も神との交わりが杜絶えた彼の苦痛は如何ほど大きかったことかも知ることができる。それは彼が前章の不信仰に対する報いであると同時に悔い改めの期間であったとも知ることができる。肉体の力を期待できない 99 歳の時に、神は現れて『わたしは全能の神である。あなたはわたしに従って歩み、全き者となりなさい』（1 節）と言われた。この命令は、完全な生涯を指しているが、神は人間に『信仰』、『服従』、『聖潔』、『愛』等に対して完全であって欲しいと要望された。信者の完全は、神を通して現世において到達できる恵みである。『わたしは全能の神である。あなたはわたしに従って歩み』と言う言葉の中で、『わたしに従って』が英訳では『in my presence』or『before me』である。

つまり、「わたしの前で全き者となりなさい」と訳されている。これは、「一切を神に委ねなさい。そして神が与える恵みと力を信じて歩みなさい」という意味である。神的な完全である全知、全能ではなく、質的な完全である信仰と服従と愛の完全である。

イエスは、『天の父が完全であられるように、あなたがたも完全な者となりなさい。』（マタ 5:48）と言われた。その完全〔perfect〕である。3-8 節まで『わたし』と言う言葉が 7 回も言われているのは、契約に対する神の真実を表した表現である。アブラハムとサライに改名したのは、神との新しい関係を結ぶと同時に、二人の新しい出発を意味している。「割礼」は、肉の情欲を除去して聖潔になる象徴なので選民になる儀式である。

학습과 세례를 위한 준비교육 소책자

(学習・洗礼・入教 教育小冊子)

학습・세례・입교 교육은

준비교육 소책자를 이용하시면 유익합니다.

- 한국어 일본어 겸용이네요!
- 현대어 표현으로 알기 쉬워요!
- 글씨가 크고, 내용도 충실하네요!
- 신청: 총회事務局 (03-3202-5398)



福音新聞原稿募集

- ・内容: 各報告、証し、説教、自由投稿、
- ・対象: 在日大韓基督教会の全信徒
- ・言語: 韓・日語 (得意な言語でお願いします)
- ・写真: 1-3 枚程度
- ・期間: 年中 (締め切り: 毎月 19 日)
- ・送信先: fukuinshinbun@kccj.jp
shinacho2003@daum.net
- *添付ファイルは、word 文書でお願いします。

福音新聞社 編集部

東北の外国人被災者を支援するために 仙台でシンポジウムを開催

3月11日、東日本大震災で被災した青森・岩手・宮城・福島・茨城の5県には、9万人の在日外国人が暮らしていた。そのうち、災害救助法が適用された市・町・村に住む外国人は7万5281人で、その内訳は中国2万7千人、韓国・朝鮮1万2千人、フィリピン9千人、ブラジル7千人、タイ4千人……と続く。

しかし、地震・津波・原発崩壊から9カ月たった現在でも、私たちは外国人被災者に関する情報を断片的にしか知り得ていない。それは、外国人被災者の居住地が5県にわたり、また154の市・区・町・村のあまりにも広範囲に及ぶこと、外国人のほとんどが地域社会の中で孤立して生活してきたこと、そして日本社会において周縁化されてきたからである。

11月8日、「外国人被災者は今」と題して、仙台の日本キリスト教団東北教区センターで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た。「仙台キリスト教連合被災支援ネットワーク（東北ヘルプ）」と「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全国キリスト教連絡協議会（外キ協）」が呼びかけたこのシンポジウムには、宮城県・岩手県の日本基督教団と日本キリスト教会の牧師たちをはじめ、市民団体や研究者など、35人が参加した。在日大韓基督教会からは金健・関東地方会副会長、許伯基・関東社会部長、金必順・全国女性会総務らが参加。

第一部では、川上直哉牧師（東北ヘルプ事務局長）の司会で、吉田隆牧師（東北ヘルプ代表）の開会挨拶のあと、「外国人被災者は今／支援運動は今」と題して、大村昌枝さん（宮城県国際交流協会）、池住圭さん（日本聖公会東日本大震災被災者支援プロジェクト）、飛田雄一さん（N G O神戸外国人救援ネット）、大曲由起子さん（移住労働者と連帯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千葉義信さん（N P O笑顔のお手伝い）が、それぞれの現場から報告した。

そして第二部では、佐藤信行さん（外キ協）の司会で、「私たちの課題」として報告者と参加者による討論がなされた。そして最後に、中家盾牧師（外キ協）による決意をこめたあいさつで終えた。

それぞれの現場からの報告は私たちを勇気づけるものであったが、「今後の共同課題」を定立するには至らなかった。それは、対象とする領域と範囲があまりにも広すぎることで、外国人被災者が直面している住居や仕事、子どもの教育など、問題の一つ一つが容易な解決を見いだせるものではないからである。

しかし、孤立して困難な状況に置かれている外国人被災者一人ひとりの安否を確認して励まし、一人ひとりの生活が

再建されるための働きが、いま必要とされている。外国人被災者7万5千人には7万5千人の協働者が必要であり、震災復興とは「もとの生活と地域社会」が「多民族共生社会」へと再生し転換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ある。



「外キ協」と「東北ヘルプ」は9月、「外国人被災者支援プロジェクト」を立ち上げた。そして1990年代以降、東北の農村・漁村へ日本人との国際結婚で移住して来た中国人女性・韓国人女性・フィリピン人女性たちとその子どもたちに対する調査と、具体的な支援活動を始めた。それはまず、宮城県内にある309の仮設住宅（1万1827世帯）を訪ね回るといふ、気が遠くなるような作業でもある。12月からは、地元の大学研究室との共同で、各市、各町ごとに外国人実態調査を行ないながら、支援の輪を確実に広げていくことにした。

[報告：RAIK]

사과 말씀 및 안내 / お詫びの言葉とご案内

2012년도판 총회수첩 주소록의 오자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수정신청을 따라 수정페이지를 준비할 예정이니 잘못된 내용을 이메일 (baekki@mac.com) 또는 팩스 (03-3202-4977) 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2年度版総会手帳の誤字により、多くの皆さまにご迷惑をお掛けしており、誠に申し訳ありません。皆さんの修正申請にしたがって修正ページを準備する予定ですので、間違っている内容をeメール (baekki@mac.com)あるいはFAX (03-3202-4977)にてお送りくだされば幸いです。

総会事務局 総幹事 洪性完牧師

東日本大震災 KCCJ 募金口座案内

- ・銀行 (BANK) : 三菱UFJ銀行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 ・支店 (BRANCH) : 高田馬場支店
(TAKADANO-BABA)
- ・種類 (SWIFT) : 普通預金 (BOTKJPJT)